



“한센인과 함께한 25년 화폭에 담았어요”

첫 개인전 여는 소록도 병원 간호조무사 고은아 씨

광주시 남구 문화관 1층 전시장에서는 19일부터 23일까지 ‘고은아 개인전’이 열린다. ‘소록도, 오래된 풍경’이라는 주제로 열린 고은아(여·45) 작가의 첫 개인전은 ‘하모니카 부는 노인’, ‘집자가 있는 연못’, ‘부식 타는 날’ 등 26점의 유화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가을 소풍 떠나기 전날 밤 설렘 가득한 소녀처럼 상기된 표정이었다. “소록도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현대화되고, 고풍스런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곳의 아픈 역사가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한센인들이 받은 차별과 고통을 우리 모두가 제대로 알고 반성해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요.”

지난 1989년부터 소록도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고 작가는 원래 대구에서 태어났다. 경북 경산여고를 졸업한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렇

게 소록도 근무가 시작됐다. 한센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 역시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어느 순간부터 환자가 아닌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사실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못할 것 같아요. 세상 어떤 직장도 쉬운 곳은 없잖아요. 그런데 소록도는 사회에서 상처 받았던 한센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조금 특별해요. 이분들을 도우면서 오히려 제 마음속 상처가 치유 받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깐 25년 동안 있을 수 있었죠.”

인터뷰 내내 개인전을 찾은 손님들에게 인사하느라 분주했지만 밝은 미소를 잃지 않은 고 작가는 달리 그녀의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무거웠다. ‘담배 피는 사람’은 앙상하게 마른 얼굴의 남성이 시름 가득한 표정으로 담배를 들고 있다. 그러나 그의 오른손에 있는 것은 불 꺼진 담배다. 한센병으로 잃은 왼손 때문에 흔자서는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도 힘겨워 보인다. 소록도의 풍경을 담은 ‘마을 풍경’ 시리즈도 어두운 색과 투박한 질감이 도드라진다.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바다와 교회 십자가는 빛나는 반면 눈 앞에 보이는 집들은 낡고 초라해 위태롭게 느껴졌다. “하모니카 부는 노인” 역시 80년대까지 한센병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을 누빈 땀의 연주단을 모델로 그린 작품이다. 그러나 더 이상 하모니카 부는 노인들은 소록도에 남아 있지 않다. 고 작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불과 10년 전까지 있었으나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자칫 소록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지워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림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소록도와 한센인에 대한 사랑을 작품에 담았다는 고은아 작가, 그녀는 아마추어 작가로서 이런 개인전을 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한센인들 앞에서 지내며 그들의 애환을 캔버스에 담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경찰청, 경찰무도대회 남녀 유도 동메달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은 최근 충남 아산시 경찰교육원에서 제68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경찰무도대회에서 남녀 유도 부문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지방경찰청에는 15명이 참가해 동부경찰서 김도형(44) 경사와 제3기동대대 김은화(여·31) 순경이 각각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유도·검도·태권도·사격 등 4가지 종목으로 진행됐다. 선수단을 이끈 광주청 차복영(가운데) 선수단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광주경찰의 무도실력을 우수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줬다”며 “앞으로 꾸준히 무도실력을 연마해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복문화사업단 ‘희망 넘치는 행복음악회’



행복문화사업단(공동대표 이춘석, 정선택)은 지난 18일 광주교도소에서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음악회’ 공연을 펼쳤다. 행복문화사업단은 지난 2011년, 2012년에도 시민들의 기쁨 등을 토대로 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은 5인조 여성댄스팀 ‘이카루스’의 공연과 함께 벨리댄스, 우쿨렐레와 퍼커션 연주 등 아날로그 밴드팀 ‘바다프로젝트’의 공연이 펼쳐져 큰 호응을 받았다.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음악회는 지난 5월27일 대전교도소를 시작으로 강릉교도소, 목포교도소, 제주보호관찰소, 청주소년원, 경주교도소, 광주교도소 순회공연을 마쳤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배용준, 한류 10주년 대상 2관왕



한류스타 배용준(41)이 지난 19일 일본 지바 마쿠하리 멧세 국제 전시장에서 열린 ‘한류 10주년 대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비롯해 2관왕에 올랐다고 소속사 키이스트가 20일 밝혔다. ‘한류 10주년 대상’은 지난 2003년 드라마 ‘겨울연가’로 접화된 일본 내 한류 10주년을 기념하고자 ‘한류 10주년 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시상식. 배용준은 이 시상식에서 ‘드라마 대상 - 남자 배우 부문’ 그랑프리상과 전체 부문에서 최우수 대상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배용준과 한솔밥을 먹는 가수 겸 배우 김현중(27)은 ‘뮤직 대상 - 남자 솔로 아티스트 부문’의 그랑프리상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광산미래포럼 ‘안철수 신당...’ 포럼



광산미래포럼(이사장 서종진·사진)은 지난 18일 호남대학교에서 ‘안철수 신당 호남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이 이어졌으며, 시민 800여 명이 참여했다. 서종진 이사장은 “새로운 변화의 핵심에 다시 한번 광주의 역할을 결집하는 데 광산미래 포럼이 첨병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동신여중, 인사 초청 ‘진로탐색의 날’



광주 동신여자중학교(교장 신민철)는 지난 18일 경제·법조·경찰·언론 등 각계 인사 22명을 초청 ‘진로탐색의 날’ 행사를 개최, 학생들에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동신여중 제공)

길가서 주운 거액 돌려준 품앗고 학생들

강산·김민혁·고재언 군 선행 훈훈

광주 품앗고등학교(교장 윤영월) 학생 3명이 수백만원의 전세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위 주인에게 돌려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혁·강산·고재언 군. (품앗고 제공)

이 학교 2학년 강산·김민혁·고재언 군 등 3명은 지난 13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회관 앞에서 8개의 신용카드와 600여만원의 수표·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웠다. 학생들은 주인을 찾아가주기로 하고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택배 영수증에 적혀 있는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했다. 지갑의 주인은 광주지역 모 대학 교수로 택시에서 내리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지갑이 택시 바깥 위로 떨어진 것을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갔고, 한 참 뒤에야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됐다. 지갑 안에는 자녀의 전셋돈 계약금이 들어 있어 망연자실해 있는데 학생들로부터 전화가 왔고, 잃어버렸던 물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을 수 있었다. 이 교수는 품앗고 학생들이란 얘기만 전해듣고 경악이 없는 상태에서 해이였으나 며칠 뒤 품앗고 교장에 자신의 지갑을 찾아 준 3

명에 대해 고마움의 인사와 격려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 뒤늦게 학교에도 이 같은 선행이 알려졌다. 편지에서 이 교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게임중독, 휴대전화중독에 예절 모르고 과잉보호로 길러져 큰 일이라고 생각했던 편견이 덕분에 사라졌다”며 “이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타 학생들의 본이 되게 해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글짓기하며 환경사랑 쑥쑥

‘GS칼텍스 환경글쓰기대회’ 성료

GS칼텍스(대표이사 허진수 부회장)가 지역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GS칼텍스 환경글쓰기대회’가 올해로 20회를 맞았다.



대회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지역 최대 어린이 축제’라며 “GS칼텍스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미술대회, 글쓰기대회, 어린이 마을 특목 사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지난 1994년 1회 대회를 시작한 GS칼텍스 환경글쓰기대회는 그동안 약 6만여 명에 이르는 초등학생이 참가한 지역 최대 어린이 행사다. GS칼텍스는 올해 GS칼텍스 환경글쓰기대회를 지난 19일 GS칼텍스 예울마루 일원에서 학생과 학부모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며 20주년을 자축했다. 20주년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20대1의 높은 경쟁 끝에 사회자로 선정한 강규준(한려초 6)군과 박민영(한려초 4)양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오후 1시까지 본격적으로 펼쳐진 글쓰기 경연이 벌어졌다. GS칼텍스 전상호 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GS칼텍스 환경글쓰기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조철호(청송군건설·덕진건설 대표이사)·한경민씨 차남 준환군 이재신·이정애씨 장녀 지은양=26일(토) 오후 5시 아름다운컨벤션 2층 베르사체홀.

▲조은식·전정실씨 장남 용현군 최속한(한국전남대표)·김영아씨 장녀 미희양=26일(토) 오전 11시 피엔제이웨딩홀 2층 주얼리홀.

동창동문회

▲조선대학교 조우회(회장 민경재) 월례회=22일(화) 오후 6시 산밭들 식당(산수동) 062-234-5336.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연) 제4차 정기이사회 및 한미음 산행=26일(토) 오전 9시 풍암동 금당산, 집결지는 풍암호수 주차장(까만느 건너편) 062-361-2680.

宗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월례회의(회장 이보희)=22일(화) 오전 11시 011-605-2059.

향우회

▲재광보성음향우회 월례회=28일(월) 오후 6시 30분 페르마(유동) 062-525-5566, 010-4609-2475.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종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062-

526-3370.

▲광주남구종독관리센터=5대종독(알코올, 인터넷, 마약, 도박, 니코틴)에 대한 상담을 제공. 21일(월) 오후 6시 30분 062-412-1461, 062-413-1195.

▲제1회 전국 동요경연대회 개최(주최(사)한국음악협회 합평금지부)=11월 9일(토) 오후 2시 합평군민회관 2층. 경연부문 및 경연곡은 독창, 중창, 전곡. 초·중·고·일반 동요를 사랑하고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함, 참가신청은 11월 4일(월), 시상은 각 부문별 최우상 1명·우상상 2명 문의 010-2047-9237(윤선범 사무국장).

▲홀트재단복지회 국내입양 가정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재단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 무료자선봉사 =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봉사용으

로 음향장비(앰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모집

▲시니어비즈플라자 ‘심리상담사 양성과정’ 교육생=모집 대상은 주부 40세 이상(직장인 제외)·교육비 무료, 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교육기간은 11월 5일~ 28일(주2회·화·목, 오후 2시~6시) 금남로 2가 무등빌딩 13층, 접수마감은 31일(목) 오후 6시까지(선착순 25명) 교육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young585@naver.com 또는 팩스 062-236-3263.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시니어비즈플라자 062-236-3262.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정서중심과정2급 자격과정 개설 안내=26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 광산대학교 진리관 101호 문의 및

접수 010-8299-6237. ▲무등산에너지=사·군·구 무자본

대리점주 및 남·여 사원 모집 062-251-0611, 010-5126-5324.

▲강원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참가자=만 22세~45세 구직자 대상, 참가비 무료, 수료증 ‘경제교육지도사 자격증’ 발급, 수료 후 학교, 단체 강사활동 가능. 모집기간 25일(금)까지. (사)인재육성아카데미 062-224-7733. http://www.mdsarang.com

▲살레시안 가족합창단원 모집(단장 나금주, 지휘 김철수)=살레시오 초·중·고 졸업자 및 그 가족이며, 합창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함 (부부 중 한분이라도 동문이면 됨),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상무중학교(운천저수지 옆) 010-3404-3712(단장).

▲무등 예술종합 평생교육원(국비 지원 100%)=교사를 위한 반주법, 리더쉽과 스피치, 뮤지컬 탭댄스(일반부·자격증반), 음악치료, 심리상담사 자격증반, 미술치료 심리상담사 자격증반, 북구 무등2동 무등파크1차 상가 2층 062-269-6669, 010-3606-0230.

부음

▲이양지씨 별세 장제사(능협순회보험 자산운용부 차장)제 모친상 박봉남(자영업)·박국영(자영업)·김희동(전 전남 진도군청 기획조정실장)·최규욱(약사)·박현영(광주일보 사회부 국장)·박형준(교사)씨 빙도상=

발인 21일(월) 산밭조합추모관(진도군) 2호실 061-543-4040.

▲임중규씨 별세 홍씨·은수·은정·지수·신화·연수씨 부친상=발인 21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이경환씨 별세 진석·진욱·여진씨 부친상=발인 21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401호.故양동섭님(남/70세) 子/子婦: 양기중/나선화, 윤석/정미영 女/女: 양원숙/신동환 喪主: 양준수 ●호실: 401호 ●발인: 10월 22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402호.故조소임님(여/98세) 子/子婦: 조영민, 정용기/박복민 女/女: 전순임/소기우, 손득/김영용, 심례/김효순 孫: 장준선, 종용, 종우 喪主: 나종순 ●호실: 402호 ●발인: 10월 21일 ●장지: 화산역 ●연락처: 227-8314
101호.故곽순례님(여/81세) 子/子婦: 박금홍/최말숙, 김주/김영숙 女/女: 박말숙/최현국, 말자/민홍석 喪主: 오현숙 ●호실: 101호 ●발인: 10월 22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102호.故전대규님(남/62세) 子/子婦: 전이성/김기희, 현삼/박성민 女/女: 전효숙/최갑석, 효미/이상주 喪主: 오현숙 ●호실: 102호 ●발인: 10월 22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마음과 지친 안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